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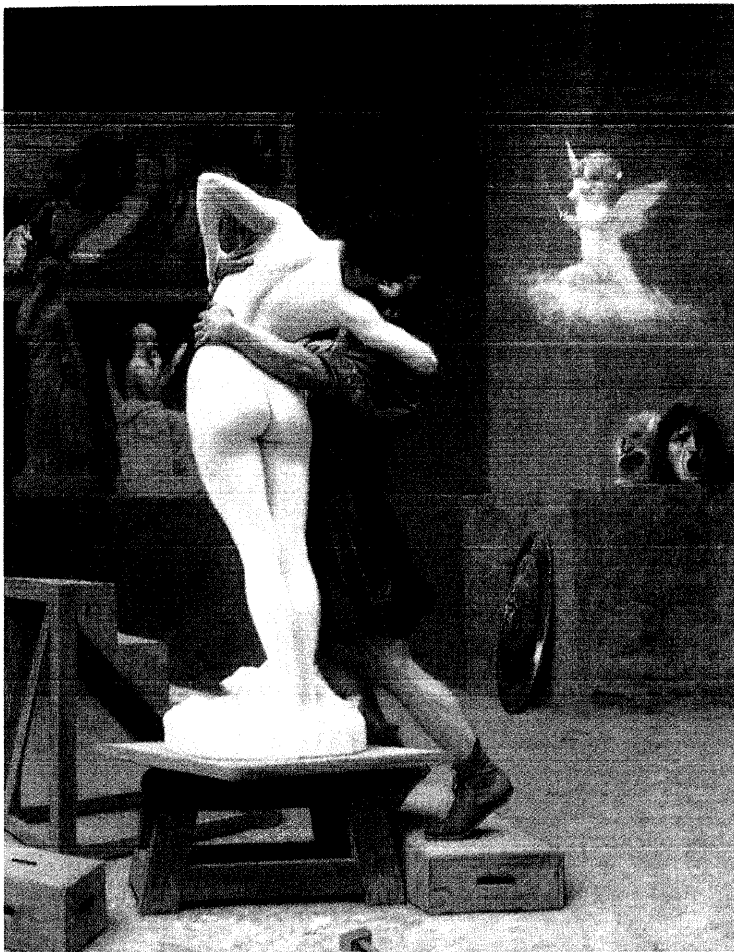
피그말리온

옛 날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다. 솜씨가 뛰어났던 그는 어느 날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 그는 더 이상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은 날로 뜨거워 갔지만, 조각상은 언제나 차갑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비너스 여신에게 빌기로 했다. 이 조각상과 똑같이 생긴 여인을 내려 달라고. 그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한 비너스는 마침내 그 차가운 대리석을 생명이 있는 따뜻한 육체로 변신시켜 주었다고 한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다.

예술, 종교, 철학

선사 시대에 예술은 곧 주술이었고, 거기엔 당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실제적 기능이 있었다. 비록 원시적인 믿음이었을지언정, 주술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이자 도덕 역할을 했고, 동시에 그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주술의 역기능이 순기능을 내리누르기 시작한다. 사실 주술의 대부분은 전혀 쓸모없으며 해롭기까지 하다. 가령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는 주술의 발전이 극에 달한 어느 원시 부족의 얘기를 전하는데, 거기에선 터부를 깨지 않고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모든 생활이 터부로 규제되어 있다고 한다. 얼마나 귀찮겠는가. 매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계를 이해하고 개조하려는 인류 최초의 시도가 좌절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장 레옹 제롬, 1890년

여 오히려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질식시킬 때, 인간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대안을 찾는다. 주술로 소망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은 인간은 이제 신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이 위대한 존재의 권능에 매달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발생했다. 이제 신은 끝없이 위대해지고, 그럴수록 인간은 끝없이 초라해진다. 예전엔 인간이 신을 죽였지만, 이젠 신이 인간을 살리고 죽인다.

물론 다른 길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주술이나 신화가 사물들 사이의 비유적 연관을 설정하는 데 반해, 이들은 비유를 벗겨내고 사물들의 진짜 연관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철학이 생겨난다. 처음 생겨날 당시의 철학은 지금처럼 초라한 몰골이 아니었다. 철학은 오늘의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을 감싸안은 것의 이름이었다. 오늘의 우리는 바로 이 과학의 아들이다. 과거에 주술은 사물에까지 영혼을 부여했지만, 우리의 과학은 영혼까지도 사물화한다.

그럼 예술은? 주술적 기능에서 풀려나자, 예술도 이제 주술이 아니게 된다. 예술은 '현실'과 '가상'이 분리되는 순간에 탄생한다. 가령 디오니소스 제의(祭儀) 참가자들에게 제의 속에서 재현되는 사건이 곧 현실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신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 신이 그 자리에 '재림(represent)'한 거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제의 속의 사건을 한갓 '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신이 그 자리에 재림한 게 아니다. 극 속의 신은 분장한 인간, 즉 신의 '재현(represent)'일 뿐이다. 신성한 사건이 한 편의 재미있는 연극이 된다. 제의가 예술이 된 거다.

이제 주술은 서서히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징 형식으로 나뉘기 시작한다. 시대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결정적 역할을 발휘한다. 가령 신까지도 예술적 형상을 빌려 나타났던 고대 그리스와, 예술을 종교의 필요에 종속시키고 과학을 교회의 시녀로 만들었던 중세, 그리고 과학의 오만함이 극성을 부리는 우리 시대는 얼마나 다른가! 시대가 변하면 이렇게 그 시대의 지배적 상징 형식도 달라진다. 예술에서, 종교로, 다시 철학으로.

아름다운 가상

예술은 이렇게 주술이 '가상'으로 여겨지는 순간에 탄생한다. 하지만 가상으로 탄생하는 순간부터, 예술은 자신을 변명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가상을 만듦으로써 현실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면, 이 가상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가상은 글자 그대로 '가짜'가 아닌가. 그러니 인류 최초의 미학(플라톤)이 예술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예술은 거짓이며, 알팍한 눈속임이며, 진리의 왜곡이며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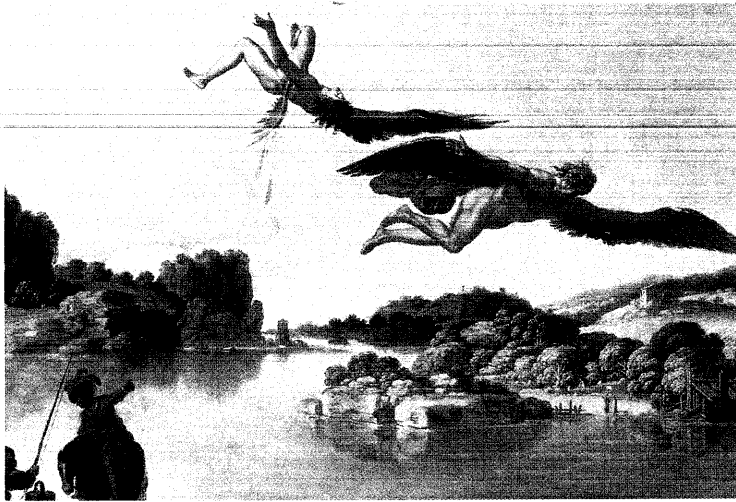
하지만 아무리 악담을 퍼부어도 '예술'은 플라톤의 '인생'보다 더 길었다. 때문에 후세 철학자들은 플라톤과는 다른 길을 가려 했다. 혹시 이 가상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술과 진리를 연결하는 것—이게 바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수많은 미학적 변주곡의 중심 테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대개 이것으로 아름다운 가상을 변호하려 했다.

이카루스의 추락

다이달로스도 피그말리온 못지않은 뛰어난 조각가였다.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돌까지도 일어서 걷게 할 정도였다니까. 또 그는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해서, 그 유명한 미노아의 미궁(迷宮)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 미궁 속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다. 그 속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무사히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는 괴물을 해치우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어떻게? '아리아드네의 실'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술의 비밀을 찾아 미학사의 복잡한 미궁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테세우스처럼 붉은 실을 따라가면 된다. 그 붉은 실은 무엇일까? 바로 '가상'과 '진리'라는 개념이다.

가상과 진리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대략 두 가지 노선이 있었다. 플라톤은 예술이 가상을 포기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가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뒤섞이면서, 미학사 속에서 자꾸 되풀이된다. 그러므로 이 두 관점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수천 갈래의 길이 어지럽게 얽힌 미궁에서 예술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중심에 도달했다가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 절대로 실을 놓치지 말도록!

마지막으로, 다이달로스는 밀랍으로 아들과 자기 뿔의 날개를 만들어 바다 위를 마음대로 날아다녔다 한다. 옛날엔 이런 일이 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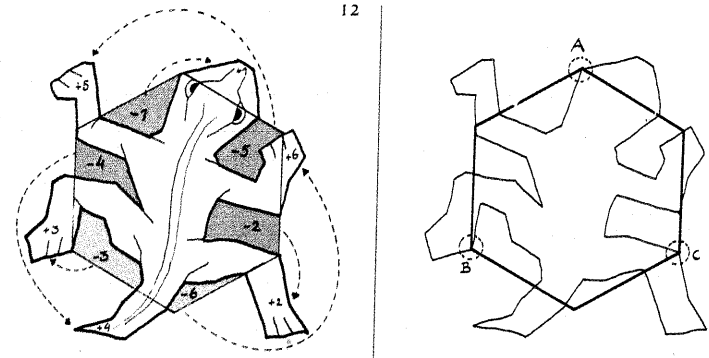
〈이카루스의 추락〉 카를로 사라체니

든지 가능했다. 예술은 마술이었으며, 예술가는 마술사였으니까. 하지만 일단 예술이 가상이 되는 순간, 예술가는 이 마법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마 다이달로스는 예술가가 마술사였던 시절의 마지막 인물이었을 게다. 그의 아들 이카루스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 뜨거운 열에 날개가 녹아,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단다. 이제 만들어 붙인 날개로 날아다니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마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카루스가 추락하면서 마술사의 시대도 종말을 고한다.

■ T. 불핀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이윤기 옮김), 대원사, 1989.

■ E.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9.

에셔의 세계 2—평면의 균등 분할



다시 〈도마뱀〉. 하지만 그뿐인가? 그림 속의 도마뱀들을 보면 여러 마리가 교묘하게 맞물려 있다. 이게 바로 두번째 주제 '평면의 균등 분할'이다. 이걸 이용하면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사방으로 무한히 뻗어나가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 위의 그림을 보라. 먼저 도마뱀 형태의 기본이 될 도형을 선택한다. 이 경우엔 정육각형이다. 그 다음 육각형의 각 면에서 한 귀퉁이를 잘라낸 다음에 변에 갖다 붙이는 거다. 그럼 회전점(turning point)인 점 A에서는 도마뱀 대가리가 세 개 모이고, B에서는 다리 세 개가, C에서는 세 개의 무릎이 모이게 된다. 신기하지 않은가? 도마뱀이 칭그럽다고? 꼭 도마뱀일 필요는 없다. 귀퉁이를 다른 모양으로 자르면, 육각형은 또 다른 형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또 어떤 형체를 만들 수 있을까?